

# 과제 산적한 여전업계... 차기 여신협회장 인선에 이목 집중

여신협회, 이달 초 공모 예정  
정원재·정완규·박지우 등 거론  
대부분 민간 출신... 경쟁 치열  
업계, 목소리 대변할 수장 기대

여신금융협회가 이달 초 공모를 통해 차기 협회장 선출 절차에 돌입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배출한 자리인 만큼 이른바 '포스트 김주현'으로 누가 결정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달 금리 상승 등 여전업계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차기 협회장은 여전업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할 전망이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차기 협회장 공모를 낼 예정이다. 차기 회장 하마평에는 ▲정원재 전 우리카드 대표 ▲서준희 전 비씨카드 대표 ▲박지우 전 KB캐피탈 대표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위성백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남병호 전 K T캐피탈대표 등이 자전타전으로 물망에 올랐다. 어느때 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동안의 협회장은 대부분 관료 출신이



차기 여신금융협회 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시스

신이 맡았다. 이에 따라 정원규 전 사장과 민간출신 간 경쟁이 예상된다.

여신협회장 선임은 ▲공고 ▲최종 후보자명단 작성 ▲선임 등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여신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린 후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후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사장 8명과 캐피탈사(KB·IBK·현대·하나·신한·산은·롯데캐피탈) 사장 7명으로 구

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후보자 스킵리스트를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3~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여신협회 이사회가 최종 1인을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추천 1인을 대상으로 여신협회 정회원사 132곳이 찬반을 통해 최종 선임한다.

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선출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협회장을 역임하게 된다.

이번 여신협회장 자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전 협회장의 금융위원장 영전이다. 여신협회가 출범한 1998년 이후 협회장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낙점된 첫 사례가 이번 정부에서 나왔다. 협회장 자리의 위상이 높아진 것. 한 여전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을 배출한 만큼 실질적인 변화는 없으나 분명 협회장 자리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또 한 가지는 여전업계 전반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급한 불을 끌 '소방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선 카드업계는 꾸준히 수수료 적격비용(원가)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금융혁신 방안에는 수수료 적격비용 개선이 빠졌다. 이에 따라 이번 차기 회장 공모에선 민간 출신이 유리할 것이라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여전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장이 필요하다. 어떤 분이 차기 여신협회장 자리에 앉을 지 알 수 없지만, 업계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NH농협은행

### 가상자산 마이데이터 출시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NH마이데이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상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7월29일 금융권 최초로 선보였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고객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NH마이데이터고객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은 물론이고 가상자산까지 관리할 수 있다.

권준학 은행장은 "가상자산 조회뿐만 아니라 고객의 자산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 신한금융그룹

### '신한 프렌즈' 신규 2종 공개

신한금융그룹은 1일 그룹 대표 캐릭터인 '신한 프렌즈(Shinhan Friends)'에 새롭게 추가된 2종(사진)의 캐릭터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캐릭터는 에너지 넘치는 행동파이자 친구들의 고민 해결사인 라쿤 '플리(PLI)'와 스트릿 댄스와 프로듀싱 능력을 겸비한 쿨한 성격의 힙합 뮤지션 부엉이 '레이(LAY)' 2종이다.

신한금융은 '신한 프렌즈'를 활용한 금융 상품과 굿즈, 캐릭터 카페, 3D 솜뭉치 영상 캠페인, 유명 일러스트 작가 콜라보 카툰 시리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 신한 브랜드 스토리를 보다 새롭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신한 프렌즈'에는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고 편하게 다가가기 위한 신한금융의 노력과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새로운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에게 신한금융이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 가치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 신한銀, '편의점 혁신점포' 3호점 오픈

GS리테일과 특화점포 협업  
영남대 인근 '영대청운로점'

신한은행은 GS리테일과 고객 중심의 채널 혁신을 지속해 3번째 컬래버 점포인 MZ세대 특화 점포 '영대청운로점'을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인근의 GS25 편의점에 문을 연 '영대청운로점'은 신한은행과 GS리테일이 지역 선정부터 디자인, 점포 구성까지 긴밀하게 협업해 만든 MZ세대 특화 점포로 유동인구의 94%가 20대 대학생인 만큼 개성 넘치는 레이아웃과 주류 구매 트렌드를 반영한 'GS25 주류 차별화존'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한은행은 GS리테일과 앞서 선



신한은행 혁신점포 영대청운로점 내부 모습.

/신한은행

보인 혁신 점포 1호 편의점과 2호 슈퍼마켓의 점차 증가하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빈도와 만족도를

평가했고, 저녁 8시까지 화상으로 금융 상담 업무를 볼 수 있는 디지털 데스크와 바이오 인증 등록 시 24시간

체크카드 발급업무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키오스크를 '영대청운로점'에도 배치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영대청운로점' 오픈을 기념해 고객 발송용 LMS와 '영대청운로점' 내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한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은 '영대청운로점' 디지털 데스크에서 화상상담을 체험 후, GS25 모바일 상품권을 랜덤으로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3호점 '영대청운로점'은 GS리테일과 지역 선정부터 공동으로 신규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혁신 점포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GS리테일과 함께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중심을 실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KB국민은행 '안심전환 대출' 콜봇상담 지원

다양한 문의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KB국민은행이 빠르고 쉬운 상담 서비스로 고객 편의성을 강화해 간다.

KB국민은행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안심전환대출' 상담에 대기 없이 상담 가능한 콜봇 서비스(Talk Talk)를 8월 중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서다.

KB국민은행의 콜봇 서비스는 음성인식기술(STT)과 음성합성기술(TTS)을 활용해 채팅이 아닌 음성으로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해 수·여신 만기 안내, 여신 연체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고객센터 상담에 인공지능-내비게이터(AI-Navigator) 서비스를 도입해 하루 평균 1만4000건의 고객 문의를 처리하고 있다. 'AI-Navigator'는 고객이 고객센터로 전화해 0번(상담원 연결)을 입력한 경우, 콜봇이 의도를 파악해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 업무로 연결하는 서비스다. KB국민은행이 자체 개발한 AI 텍스트 분석 기술인 'KB-STTA'가 적용되고 있어 고객의 다양한 문의 사항에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이 고객센터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문의를 했을 때 상담원 대기시간 없이 즉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이드도 제공받을 수 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하나銀 "퇴직연금 관리 모바일로 하세요"

은행권 최초... '연금닥터 서비스'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퇴직연금 자산관리시스템 '연금닥터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연금닥터서비스는 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클릭 한 번으로 손님이 하나은행에서 관리중인 DC형과 IRP 자산 운용현황을 12가지 투자 유형으로 진단한다. 각 계좌별 자산과 비슷한 연령대 손님군 가운데 연금을 잘 관리하는 집단의 평균적인 모습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연금자산 관리 현황을 한눈에 짚어볼 수 있도록 한다.

또 투자상품 운용 여부, 최근의 거래형태에 따라 개인맞춤형 연금관리

솔루션을 제시해 손님의 자기주도적인 연금관리를 지원한다. 더불어 하나원큐(앱) 상담예약을 통해 일대일 퇴직연금 전문 유선상담 지원으로 모바일 기반의 연금진단부터 세심한 후면터치까지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연금닥터서비스 시작에 맞춰 오는 11월 30일까지 연금닥터 서비스를 경험하는 손님 1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5000하나머니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기석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은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수준 높은 연금 자산관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연금닥터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여신금융협회

### 우수 신용카드 모집인 선발

여신금융협회가 우수 신용카드 모집인 인증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전문성 강화 및 자금심 고취를 통해 건전영업을 도모하고자 올해 6번째 우수모집인 인증자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여신협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선발한 인원은 667명이다.

지난해부터는 특별인증제인 '그린마스터'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두 번째로 선발한 그린마스터는 총 41명이다. 그린마스터는 최근 5년 연속 우수모집으로 인증 받은 모집인 중 회원유지율이 높은 순서 등으로 채택한다.

여신금융협회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에 기여한 우수모집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정산 기자